

태국 국회의장은 신임 주태 미국 대사의 예방을 접견하였다.



추언 릭파이 태국 국회의장은 2020년 10월 6일(화) 국회의사당 3층 접견실에서 마이클 초즈 디섬브레 (H.E. Mr. Michael George DeSombre) 주태 미국 대사와 예방을 받고 접견하였다. 이 자리에 주태 미국대사가 신임 주태 미국대사로 근무하게 된 기회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두 나라 관계를 강화하도록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추언 국회의장은 주태 미국 대사에게 환영의 말씀을 전하고 태국사회와 문화를 더 잘 이해하도록 태국과 미국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방콕이나 어떤 지방에서 자주 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같은 기회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확산으로 인해 많은 미국인의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Mr.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및 모든 미국인들에게 힘든 시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격려를 보내고 상황이 더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 외에 추언 국회의장은 미국이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 확산 방지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 기회를 통해서 추언 국회의장은 창의적인 정보를 함께 교환하는 것으로 다자 및 양자간 국회차원에 의해 미국과 태국의 관계를 증진하는 데에 태국 국회의 준비 상태를

퇴폴이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를 선도하게 되고 양국가에 국제지역 및 국제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주태 미국대사는 미국이 태국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태국은 태국에 투자하기 위해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데에 경제적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본다. 또한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노동 능력이 뛰어나고 해외 투자에 대한 법률도 명확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태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완화했을 때 투자가가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예비해야 되고 상황에 적응해야 된다.

이 와중에 추언 국회의장과 미국 대사는 정치·경제·공중위생·정보통신기술 분야 양나라의 관계를 비롯하여 아세안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었다.

기자/편집: 태국하원사무처

번역: 니싸폰 쏿티만, 태국 하원사무처 외국어 지원사무국